



여객기 참사 희생자 추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틀째인 30일 오후 무안종합스포츠마르크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조문객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특별취재반=김애리기자

## ‘훼손 심각’ 희생자 신원 확인 지연...유가족 깊어지는 슬픔

159명 파악...나머지 20명 DNA 결과 오늘 나올 듯  
온전한 희생자 5구 중 3구 광주·서울 장례식장 안치  
유족들 “정부, 냉동고 설치 약속 안 지켜” 강력 비판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들의 시신이 심각하게 훼손돼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가족들의 슬픔도 깊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2·3·4·5면  
국토교통부는 30일 무안국제공항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후 7시50분 기준 159명의 신원 확인이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참사 희생자 179명 중 신원 확인이 안된 20명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

원 DNA 검사를 통해 밝혀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남경찰청은 탐색객 유가족의 DNA를 채취해 국과수에 보냈다.  
나원오 전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이날 “유족에게 인도가 가능한, 비교적 온전한 시신은 5구뿐”이라며 “완전한 것은 없고, 5구 외에 더 나오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나 수사부장은 또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20명을 포함, 전체 희생자 신원

파악은 31일 중 완료될 것”이라면서도 “시신의 유가족 인도 시점은 그보다 뒤가 될 것”이라고 시신 인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신 인도가 늦어지는 것은 희생자 대부분 훼손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나 수사부장은 “1차 수습을 통해 시신 조각 606점을 확보했다”며 “하나, 하나 DNA 분석을 통해 누구의 것인지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구의 것인지 찾아야 인도가 가능하다”며 “일부 유족께서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시신 수습이 덜 됐어도 인도에 달라고 하시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그럴 순 없다”고 강조했다.

606점의 시신 조각 중 DNA 검사가 끝난 것을 모아 유족에게 우선 인도할 경우 뒤늦게 확인된 부분이 이미 장례 절차가 완료된 희생자의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나 수사부장은 또 “2차 수습 결과를 마냥 기다릴 순 없다”며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조각은 DNA 분석을 의뢰할 수 있지만 작은 것들까지 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 수사부장은 “다음 주 수요일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람과 기계가 많이 투입된다고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게 아니다”며 “시간이 필요한 부분을 이해해 달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유가족

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이 같은 수사 당국의 설명에 유가족들은 허망함을 감추지 못하고 일부는 오열하기도 했다.  
추스를 수 없는 감정에 북받친 일부 유가족들은 수습 당국 등에 “기다릴 수록 고통이다.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에 박한신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같은 슬픔 속에 있는 유가족들에게 국토부 등과 협의한 내용을 안내하며 조금만 더 인내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같은 날 오후 7시께 브리핑을 통해 “아무도 믿지 못하겠다.

약속한 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언론에 도움을 호소했다.  
박 대표는 “오후 4시면 격납고에 있는 시신 모두 냉동고에 안치할 수 있다고 약속 받았지만 현장 확인 결과 이제서야 설치 단계였다”며 “단 한 구의 유해도 냉동고에 보관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고 울먹었다.  
이어 박 대표는 “국토부 등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정부가 약속을 지키도록 도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참사 희생자 3명(광주 2명, 서울 1명)의 시신이 이날 오후 유족에게 처음으로 인도돼 각 지역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특별취재반=안재영기자

## ‘내란 혐의’ 尹 체포영장...현직 대통령 최초

공수처, 세차례 출석 거부에 강수...발부·집행 시기 문제 남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관련기사 6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 본부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전날

3차 출석요구에도 아무 대응 없이 불출석하자 체포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용산구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점을 고려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원래 공수처 검사가 직접 기소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지 않는 사건은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하게 돼 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신변 확보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소명되는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지 등을 따져본 뒤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 정황은 어느 정

도 드러난 상황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 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출석 요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에 따라 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있는지도 법원은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

한 죄도 수사할 수 있으므로 수사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런 논리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내란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다만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인 군사법원 외에 일반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전례가 없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을 갖지 않는 범죄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공수처는 여러 판례를 통해 검사의 지위를 인정받았고, 앞서 다른 사건으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수사권 부재를 이유로

각하된 적은 없다며 당연히 체포영장 청구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이를 언제 어떻게 집행하느냐 하는 문제도 남아있다. /연합뉴스

희망2025나눔 캠페인  
기부로 나눔 가치있게  
광주전남을 가치있게!  
성금접수 계좌  
광주 사랑의 열매 : 053-107-999990 (광주은행)  
광주시회복지공동모금회  
전남 사랑의 열매 : 301-4000-3000-01 (농협은행)  
전라남도공동모금회

제12기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당신의 삶을 다시 디자인 할 기회!  
Redesign your life!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제12기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요강**

- 지원자격** 기업경영진 및 관리자, 지자체장 및 의원, 기관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계 전문가 등
- 모집인원** 00명 내외
- 교육기간** 2025년 3월 25일(화) ~ 2025년 12월 중강(연 16회)
- 강의시간** 격주 화요일 오후(7시~8시30분, 6시부터 식사)
- 강의장소**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 전형방법**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세금계산서 요청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수강료 : 380만원(부가세 포함)  
- 입금계좌 : 광주은행 (016-107-391900 : (주)광주매스컴)  
- 접수마감일 : 2025년 3월 14일(금)  
- 문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 (062-650-2079)  
-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38번길 16

주요강사진 (예정)

관수홍 소장 리안경제연구소	김계훈 교수 연남대학교	권대중 교수 부용산대학원	문일주 교수 ASSIST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재희 회장 민족문화원전통연구소	오정애 국악인	이승재 영희행운가	임진모 음악평론가
최윤희 대표 2M유니버시티	한다혜 박사 서울대학교 소비자학자		